제1강 - 헤르메스에서 리쾨르까지 :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와 해석된 성서①

(1교시)

◆ 고대의 해석학

※ 학습목표

해석학과 서양 고대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 해석학이란

해석학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런 것이 있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개과정이나 심화과정, 특별히 고민스러운 부분을 캐려 애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적 문제의식의 심화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겼다. 현대의 우리가 듣기에는 말 그대로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치는 것 같지만, 고대 아테네라는 시공간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매우 불온한 말일 수 있다. 민주주의 세상이었던 아테네에서, 누구나 사회 지향점에 대해 말하는 것에 저항한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등장한 여건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면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철학적 문제에서 그 심화과정을 다섯 명의 철학자들과 더불어 따져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철학아카데미『현대철학의 모험』길, 2007

▲ 신의 말을 전달하는 헤르메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나 말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 해석은 필요하다. 신화시대 인간들에게 이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특정 신화를 공유하는 인간 집단들은, 신화를 함께 알아들을 수 있어야 자신들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의 신화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들의 말을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서로 상이한 시대에 살더라도 그 말을 동일한 의미로 해독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 기술을 소지한 전문가가 고대 희랍신화에도 등장한다. 헤르메스 Hermes가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석학 즉 hermeneutics 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한다. 인간이 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신과 다른 시간에 놓여 있더라도, 신의 이야기는 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간이 이해 가능하도록 해석되어 전달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에서 해석된 성서로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성서를 해석해야 하였기에 해석은 신화시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성서 해석이 필요하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서란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믿음의 말씀이기 이전에, 해석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 해석은 서양 고대의 사상 전개 과정에서, 특히 헬레니즘 시대와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치며, 교회가 주도하는 해석으로만 점차 받아들여져 갔다. 중세에 들어서서는 교회가 정한 규준이 성서 해석을 마침내 좌우한다.

▲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찾았던 아테네

민주국가 아테네는 BC388년 멸망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20세기까지 회복되지 않는다.) 아테네 멸망을 기점으로 그리스인들의 세상을 보는 시선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전까지 그들은 인간의 행복을 공동체 안에서 찾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행복을 공동체 안에서 찾았던 철학자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반납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행복할 수 있을까? 매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

▲ 윤리시대 - 헬레니즘시대

공동체를 상실한 헬레니즘 시대의 인간들은 여전히 행복을 원한다. 이 행복은 앞선 시대에서처럼 도시국가와 같은 정치 결사체에서 구해질 수 없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행복은 헬레니즘 시대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시대의 인간들은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회의주의 학파 등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 정치적 공동체를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행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추구한다. 헬레니즘 시대는 윤리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을 구하는 기본적인 터전은 정치적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자 인간의 윤리적이 차원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apatheia)' - 정념이나 외계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의 경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제1강 - 헤르메스에서 리쾨르까지 :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와 해석된 성서①

(2교시)

◆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에서 해석된 성서로

※ 학습목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에서 해석된 성서로 바뀐 배경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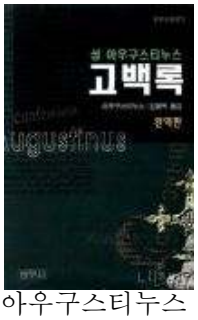
▲ 아우구스티누스와 고백록

고대 세계에서의 성서 해석이 중세 전통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있던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마니교의 신도였다. 또한 신분차가 나는 여성과 아이를 낳으며 동거하기도 했다. 40대에 신부(神父)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서 벗어나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과오 등 자신의 지난 일생을 담은『고백록』을 저술한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록』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진정 고민했던 문제가 담겨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참고자료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철학자이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Aurelius Augustinus, 354.11.13~430.8.28]

■참고자료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Augustinus)confessionum』범우사, 2000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

아테네 멸망 이후 수백 년간 지속된 윤리적 행복관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이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근원적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표시한다. 『고백록』에 따르면 악은 신에서 유래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물질이나 육체에서 연유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선의 물질성을 강조한다. 선은 물질과 육체라는 경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악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뿌리를 둔다.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관이 무너진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은 정말로 시작된다.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행복으로의 길이 가로막힌 인간에게 행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답변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 악에 빠진 것도 자유의지였기에 악에서 스스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당시의 펠라기우스 Pelagius 등이 그 시기 북아프리카 지역의 종교 풍토와 초기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토대로 피력한다. 그런데 악의 근원성에 비추어보면 신의 구원 의지인 은총이 있어야만 인간의 행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해되는 길을 찾고 있었다. 자유와 은총의 조화 가능성을 그야말로 힘들게 구하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행복해진다고 쉽게 보이는 결론을 내세우는 펠라기우스 일파는, 분명한 대척자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의 행정력까지도 이용하여 비난한다. 418년 북아프리카 공의회는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배격하고, 은총에 의한 행복관을 공식 견해로 표명한다. 이는 사상사에서 보면 중세의 시작쯤에 해당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고대의 마지막 인물이자, 동시에 중세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곤 한다.

▲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에서 해석된 성서로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론 비판으로 촉발된 중세로의 진입과 더불어, 성서는 '해석되어야 하는' 것에서, 교회가 정한 해석 기준에 따라 '이미 해석되어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성서는 여전히 해석되지만,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해석되어 후속 세대에 전달되어야 하는, 따라서 세대 전승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해석학 전개 과정에서, 오늘날 대표자 가운데 한 명인 리쾨르가 추적하고 있다. 리쾨르 해석학에서 악은 하나의 해석 기준에 따라 이해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는 원죄 사상에 나타나는 여러 상징들을 들춰내고자 한다.(→15강)

■참고자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프랑스의 철학자
리쾨르 [Paul Ricoeur, 1913~2005.5.20]

▲ 슐라이어마허

해석되어야 하는 성서가 해석된 성서로 바뀐 지점을 최초로 물었던 사람은 슐라이어마허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등장한 인물로, 당시 유럽사회는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요구하고 있었다. 구교, 성당은 이미 정해진 내용의 교리를 학습해야 하지만, 신교의 교회는 스스로의 영적 체험을 강조한다. 슐라이어마허 또한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에 더해,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이자 철학자
슐라이어마허 [Friedrich Ernst Daniel Schleiermacher, 1768.11.21~1834.2.12]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